



박찬욱 감독이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 호텔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욱, 극장용 한국영화 준비 중 최동훈, SF영화 1·2편 동시 제작

차기작이 궁금한 감독들

박찬욱, 최동훈 등 국내 우수 감독들의 차기작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베일에 싸여있지만, 신작 소식만으로도 영화 팬들을 설레게 한다.

16일 영화계에 따르면 2016년 '아가씨'와 지난해 영국 BBC 6부작 TV 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을 선보인 박찬욱 감독은 극장용 한국 영화를 신작으로 검토 중이다.

이달 7일 노르웨이 대표 국제영화제 '필름 프롬 더 사우스 페스티벌'에 참석한 박 감독은 "현재 극장용 한국 영화를 쓰고 있는데, 그 작품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수사 드라마면서 로맨스 영화다. 수사와 로맨스가 같은 비중으로 등장하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박 감독은 이와 동시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각본을 개발 중이다.

박 감독 측은 최근 배우 이병헌에게 신작 출연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은 영화 '비상선언'과 노회경 작가 신작 드라마 '하이'에 이미 캐스팅된 상태. 내년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어 박 감독과 이병헌의 만남은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타짜' (2006), '도둑들' (2012), '암살' (2015)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의 신작도 기대를 모은다.

외계인이 등장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전개되는 SF영화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인 줄거리나 제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배우나 제작사 대표 등 소수만이 시나리오를 봤을 정도로 철통 보안 속에서 진행 중이다. 특이한 점은 '신과함께' 시리즈처럼, 1편과 2편을 동시 제작해 순차적으로 개봉한다는 점. CJ ENM이 투자배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 배우로는 유준열과 김태리가 캐스팅됐다. 아울러 비인두암으로 투병한 김우빈도 회복단계에 접어들면서 이 작품을 복귀작으로 선택했다.

영화계 관계자는 "편에서 김우빈이 유준열과 함께 메인 서사 속에 등장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최 감독은 당초 신작으로 영화 '도둑'을 찍기로 하고, 김우빈을 캐스팅했으나 김우빈이 투병하자, 제작을 중단했다.

'도가니' (2011), '수상한 그녀' (2014), '남한산성' (2017) 등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

징어 게임'으로 돌아온다.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억원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정재가 주연으로 캐스팅된 데 이어 영화 '양자물리학'에서 좋은 연기를 펼친 박해수도 합류했다.

영화계 관계자는 "이 작품 속 게임은 패배하면 바로 사살하고, 마지막에 이긴 자만 돈을 챙기는 비정한 게임"이라며 "인간에 상식과 자본주의 어떤 등을 '오징어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추억의 게임으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관상' (2013) '더 킹' (2017)의 한재림 감독은 항공기 테러를 소재로 한 재난 블록버스터 '비상선언'을 준비 중이다. 송강호와 이병헌이 투톱으로 출연한다. 둘은 '공동경비구역 JSA' (2000),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2008), '밀정' (2016)에 이어 네 번째 호흡을 맞춘다. 이 작품은 최민식, 설경구 등이 속한 연예기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처음으로 제작하는 영화이기도 하다.

'비상선언' 관계자는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생화학 테러를 다룬다"면서 "인물 심리에 초점을 맞추며 가족과 휴머니즘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첫 촬영은 내년 2월이다.

김태용 감독은 '만추' (2010) 이후 오랜만에 상업 영화 '원더랜드' (가제)로 돌아온다. 가까운 미래 가상 세계 원더랜드에서 벌어지는 여러 인물 이야기를 그린다.

현재 수지, 박보검, 정유미, 최우식과 김태용 감독의 부인인 탕웨이 등이 출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는 영화사 불이며 배급은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가 맡는다. 내년 상반기 크랭크인 예정이다.

김지은 감독은 한·프랑스 합작 드라마 '클라우스 47'을 차기작으로 내놓는다. 프랑스 정계를 뒤흔든 로비스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4부작이 될 예정이다. 이하늬가 주연을 맡았으며 프랑스 배우들도 출연한다. 현재 프리 프로덕션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촬영을 시작한다.

'추격자' (2007), '곡식' (2016)의 나홍진 감독은 배급사 쇼박스와의 계약을 맺고 신작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쇼박스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주판 '복면가왕' 현지 시청률 전체 1위

한국 방송포맷 관심 높아

호주판 '복면가왕'이 현지에서 해당 요일 전체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 방송포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코트라(KOTRA) 호주 멜버른 무역관에 따르면 호주판 복면가왕 시즌1은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네트워크 310' 채널에서 매주 월, 화요일 오후 7시30분 방송되며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첫 방송은 156만명이 시청해 2015년 이후 네트워크 310 역대 최고 시청률을 냈다.

호주판 복면가왕에서 출연자들이 쓰고 나온 가면과 의상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의상상을 받은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로봇, 늑대, 몬스터, 유니콘, 거미 등 다

양한 동식물과 사물을 형상화했다. 주로 얼굴만 가리는 가면을 쓰는 한국 프로그램보다 스케일이 더 커진 셈이다.

한국 복면가왕은 복면 속 인물 찾기와 노래 감상이 어우러진 형식이라면 호주판은 복면을 쓴 참가자를 맞추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추며 게임적 요소를 부각했다.

또 할리우드에 진출한 호주스타, 은퇴한 운동선수, 추억의 컨트리 뮤지 가수 등 호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향수를 자극할만한 참가자들이 대거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MBC의 음악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은 호주 외에도 현재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전세계 40여개국으로 포맷이 수출된 상태다. 미국판 복면가왕은 지난 시즌에서 1400만명 이상의 시청자를 끌어 모아 흥행몰이를 일으켰다. /연합뉴스

지성, 리얼리티 예능 '런' 내년 1월 tvN서 방송

배우 지성(사진)의 첫 리얼리티 예능 '런' (RUN)이 내년 1월 tvN에서 방송된다.



연출을 맡은 김현실 PD는 "최근 러닝 문화가 확산하며 달리기를 통해 자존감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출연진의 달리를 지켜보며 시청자도 입장을 잠시나마 잊고 위로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첫 방송. /연합뉴스

tvN은 지성과 강기영, 황희, 이태선이 국내외를 함께 달리는 예능 '런'을 론칭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달리기 여행을 하면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에 도전한다. 국내외 아름다운 '러닝 로드'가 방송에 담길 예정이다.

황동혁 감독,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와

한재림 감독, 재난 블록버스터 '비상선언' 준비 중

김태용 감독, 상업 영화 '원더랜드' 제작 검토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콩파리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UHD 특선 드라마 W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조선로코-녹두전(재)	00 12 MBC 뉴스 20 전국시대(재)
00 KBS 뉴스 12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VIP(재)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다큐 인사이트(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뉴스브리핑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플 샐러드(재)	20 모두 다 콩파리(재)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썸바이벌 1+1(재)	00 5 MBC 뉴스 25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바다의 경고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1주년 특집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00 KBS 뉴스 9		5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00 가요무대	00 조선로코-녹두전	
00 더 라이브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개는 훌륭하다	20 언니네 샐롱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네트워크특선(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00 EBS 다크프라이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
07:45 페파 피그	13:55 별일 없이 산다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당 유치원	14:45 물방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띠띠뽀 띠띠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마틸다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9:00 출동! 슈퍼윙스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15 마사와 곰	15:55 출동! 슈퍼윙스(재)	<중국한시기행10 황희3 - 황희의 꿈>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사와 곰(재)	<도시락 기행 1부 산으로 소풍 간다>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EBS 다크프라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3:35 별일 없이 산다

	36년생 의도대로 행해도 무방하다. 48년생 반복 속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다. 60년생 과감해야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될 것이다. 72년생 당해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84년생 지켜야할 선은 반드시 준수하자. 96년생 무의미하다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98, 81
	37년생 지나치다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49년생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 61년생 불수록 가래기로다. 73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하고 주된 일을 도모해야 한다. 85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 된다면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 97년생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62
	38년생 정황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야 하나니라. 50년생 흥기가 왕성하니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62년생 대단히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날이다. 74년생 나중에 자리를 잡는다. 86년생 판국을 좌우할만한 격량이 요동친다. 98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소통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2, 86
	39년생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음이니라. 51년생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의 부실함이 상당하다. 63년생 평이함에서 탈피하여 변모를 시도해 보자. 75년생 판세를 인정시키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87년생 헛대에 동저고리 넘어가듯이 가볍게 처리 될 것이다. 99년생 수량이 아니라 질의 문제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0, 69
	40년생 수연히 생긴 것이 적절히 쓰이게 되리라. 52년생 전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64년생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76년생 인식하고 있는 바보다 훨씬 못 미치지 안심해도 된다. 88년생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덕은 데로 간다. 00년생 부자연스럽다.	행운의 숫자 : 67, 13
	41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일이다. 53년생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65년생 기준과 통념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77년생 곧 걸 것 같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겠다. 89년생 붙잡아 두는 것이 특이 되리라. 01년생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4, 57
	30년생 작은 것이 인연이 되어 계기를 이룬다. 42년생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커다란 지혜임을 알아야 한다. 54년생 운운만 할 것만 큰 이익을 꾀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66년생 생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78년생 원점으로 회귀하는 형세라고 볼 수 있다. 90년생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 63, 89
	31년생 순간적인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43년생 지금 당면한 것이어서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55년생 기본 체계를 고수해야 할 시기이다. 67년생 실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79년생 착오로 인한 혼동의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 91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매끄러운 기저이다.	행운의 숫자 : 92, 88
	32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다. 44년생 원인은 따로 있으니 세밀하게 찾아본 후에 대처하라. 56년생 호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한다. 68년생 상왕 윤리에 어긋나다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80년생 바야흐로 기탄 없이 실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92년생 빈틈 없는 계획 수립이 성공 여부를의 관건이다.	행운의 숫자 : 99, 76
	33년생 습관을 잘 들여놔야 당황하지 않는다. 45년생 모여서 쓰는 바야흐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57년생 근년에 대한 원칙을 고수해야 할 시기이다. 69년생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니 계속 밀어 붙여라. 81년생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93년생 실행한 후에 밝혀도 되니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06, 24
	34년생 속명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46년생 부기가 한 몸에 따르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58년생 무난하게 진행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70년생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실망할 수 있다. 82년생 핵심 골자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94년생 문제점은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82, 91
	35년생 최선을 다 해왔는지 돌아켜 볼 일이다. 47년생 달라지고 있느니라. 59년생 이면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71년생 대체적인 골격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83년생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왜곡 되어질 수 있다. 95년생 내버려 두면 큰 일 나겠으니 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3, 37